

깊이 생각하고 굳게 잡으라

에스겔 36:24-28, 히브리서 3:1-14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 (1) 깊이 생각하면 각인되고, 각인된 것은 체질이 되어 성취된다.
 - (2) 무엇을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령 혹은 악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1.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구원이다.
- (1)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 (2)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이 된다.
2.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 (1)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라. (유월절, 행1:1 예수가 그리스도 - 과거 해결)
 - (2)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 (수장절, 행1:3 하나님의 나라 - 미래 해결)
 - (3)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오순절, 행1:8 성령충만 - 오늘 승리)

결론 : 굳은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 (1) 오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기도·전도를 두려라.
- (2)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종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우들이 점점 앞으로 오고, 우리 램프들이 분을 보이고, 앞자리가 차니까 뒷자리도 차 가는 것 같다. 아래층을 채우면 위층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붙잡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1절에 보니까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다. 생각을 깊이 하면 각인된다. 각인된 것은 삶으로 연결되어서 체질을 만들게 된다. 이 체질이 쌓이면 결국은 성취되게 된다.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이 체질이 어떻게 쌓여 있느냐 하는 데 갈림길이 있다. 불신자들 중에도 성공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뭔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각인시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뇌에 뭔가를 새겨 버리면 그것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다. 뭔가 각인이 되어 버릴 만큼 깊이 생각을 하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하게 된다. 이번에 온 국민이 격경하고 안타까워하는 청소년 한 명에게 악한 생각이 깊이 들어가기까, 글썄 목사도 속이고 엄마 아빠도 속이고 IS 조직에 들어간 것 아닌가. 청소년, 어린이에게 악한 생각을 심기 위해서 마귀는 미디어, 문화를 총동원하고 있다. 이런 때에 사는 우리는, 후대와 시대가 멸망하지 않도록, 후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굳게 붙잡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한 주간 이번 메시지의 제목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이번에 일본을 거쳐서 대만을 다녀왔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호감을 많이 줘서, 많은 분들이 오기도 하고 그랬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초청잔치였다. 대만에서는, 20여 년 동안 대만을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선교사님들이 든든히 서고 그 자녀들이 건실하게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서 저렇게 견고할 수 있나 싶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현장에 가서 울곧게 사는 게 힘든데 아이들이 너무 잘 한다는 것이다. 대만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대하구나 하고 말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우리가 매우 흡족하고 행복했다.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를 줘 보면, 전에는 울고 싫어하고 그랬다. 쳐다보는 것도 원망스럽게 쳐다봤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복음이 선포되니까 아이들이 표정이 달라졌다. 내 소리를 알아듣는 것이다. 그러니 웃는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할 나의 감동이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우리 중직자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한다.

1.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이분을 깊이 생각하면 큰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오직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1)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최대 영웅이자 최고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는 모세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없애 버렸다. 무덤이 있으면 틀림없이 이 백성들이 무덤에 와서 경배할 테니까 하나님이 없애 버리신 것이다. 그런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비

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서신이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알아듣기 쉽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① 모세는 집의 종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이 우주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2절, 3절에 보면, 모세와 그리스도는 똑같이 하나님의 집을 맡았으되, 모세는 종으로서 맡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으셨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5, 6절에 보면,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고 했다. 종과 주인 아들의 차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번 주간에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깊이 주님을 생각하시다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란다.

② 특히 중요한 것이, 모세의 역할에 대해서 말했다. 5절에 보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했다고 했다. 메시야가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메시야가 어떻게 오셔야 할 것인지를 설명한 것이 모세였다. 창세기 3장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다. 창 3:15의 언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는 말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마귀에게 장악되어 버린 상태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다. 방주를 만들어서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다. 메시야 보낼 땅으로 가서 창11장의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라고 말한 사람이 모세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는 것을 모세가 다 기록했다. 이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다. 여러분, 바울과 모세를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나? 바울이 한 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왼쪽을 보니까 창세가 보이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롬16:25-27에, 창세를 계속 말한다. 그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니 세말(世末)이 보인다. 그래서 세상 말세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똑같은 원리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좌측을 보니,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의 일을 설명하면서 보여 주셨다. 오른쪽을 보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 만남으로써 이렇게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한다.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이지만, 그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으니 진짜 저자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

(2) 두 번째로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굳게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기를 정말 바라는데, 6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깊이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확신과 소망을 굳게 잡는 자는 그 집이 된다고 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다. 고전3:16, 고전6:19은 이렇게 말씀한다. “내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령을 영접해 모시는 순간 너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다.” 그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찬송 작가는 ‘빈 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네’ 라고 말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붙잡는 것을 영접이라고 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해 버리게 된다. 그 나라가 임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도다.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창3장에 빠져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를 제압해서 너를 건져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다. 승리하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축복을 이미 받았음을 아시는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몸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 복음공동체다. 이 축복과 행복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란다. 생각이 떠나면 마음이 떠나고, 마음이 떠나면 사랑이 끝난다.

2.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

두 번째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할 것은,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다. 예수를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는 이분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다른 것을 잡으면 안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인데, 이제 두 번째 나눌 부분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참사랑 가족 여러분, 예수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14-15절에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다.

(1) 14절에,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작부터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 오직 복음의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시작해야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유월절이다. 양의 피를 바르고 제대로 시작하라는 말이다. 행1:1,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대로 출생하셨고 어떻게 자라셨고, 무슨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고난당하시

고 죽으시고 무덤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셨는지를 전부 기록했다. 그래서 데오필로에게 먼저 쓴 글이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였다는 말이다. 이것이 사복음서 전체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바로 알고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스도 아니면 인류의 문제, 당시 가정의 문제, 당시 영혼 속에 있는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상을 영적 문제와 저주 재앙에서 건져낼 수 없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 국가의 전쟁과 재앙과 어려움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 늘 유월절을 생각하라.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분의 나라가 된 것이다.

(2) 다시 14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했다. 정말 오직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한다.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열매를 거두들이고 저장하게 된다는 말이다. 농사도 안 지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수장절을 지냈지 않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행1:3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다.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당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계속 잘못을 또다시 저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한다. 받은 자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나니 가나안 땅 들어갈 미래가 다 준비되었지 않나. 이 소망을 견고히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 집이 천국에 다 준비되었다. 이제 그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으니, 그 때가 되면 우리 집에 놀러와라. 맛있는 것을 많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다. 특별히 우리 참사랑 가족들은 대접을 잘 해 드리겠다. (웃음) 결혼이 이미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구원도 이미 받았지만, 미래 천국도 다 준비되어 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끝내 주셨다. 정말 축복을 받은 것이다.

(3)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다. 과거에서는 해방되었고 미래는 이미 답이 있다. 다 해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지금을 살아야 한다. 이게 문제다. 오늘의 시간표가 중요하다.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홍해까지 건넌 것 때문에 다시는 노예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야 한다. 그래야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다. 못 오신 분들은 너무 손해를 많이 봤다. 다시 3오늘을 시작하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에 다시 도전하자. 일곱 살 어린아이부터 80이 넘는 할머니까지 다시 도전하자. 중직자들은 다짐을 다시 하라. 도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답이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것이 오순절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생명의 떡,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을 말한다. 구름기둥, 불기둥, 언약재를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패거리를 지어서 거역하게 된다. 성령인도를 받고 성령충만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성령의 충만의 응답을 받아야 되었는데, 오순절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인데 말이다.

오늘 7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계속 나온다. 왜 실패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당을 지어서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너만 해 먹느냐' 하면서 싸웠지 않나. 결국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땅이 갈라져서 삼켜 버렸다. 이것을 거울, 교훈이라고 한다. 이것을 잘 봐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이 완고하여 듣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 눈 감은 분들은 눈을 떠라. 팔짱 낀 분은 팔짱을 빼라. 지금은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집중해야 한다. 이 말씀을 놓치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 앞에 올 때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는, 이 못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셔야 한다. 그러면 은혜 못 받을 시간이 없다. 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최정운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율법이었지만. (웃음) 나도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다. 당신은 김익두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이 많으신 김익두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님을 부르시더니, 갑자기 설교를 하라는 것이다. "제가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해!" 노인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설교 다 끝나고 나니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외쳤다. "이놈들이 들었느냐!" (웃음) 너무 당신이 감동이 되니까, 은혜를 받았다 이거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야. 말씀이 선포될 때는 불같은 분이요. 성경대로 선포하니까. 이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다. "나는 어떤 분이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여섯 살, 일곱 살 먹은 아이가 선포해도 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6살 램뎀트가 암송한 복음소식을 들어 보라. 얼마나 은혜가 되나. 나는 그때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혀 버렸다.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천명 사명 소명을 내게 주시는지, 무슨 언약을 주시는지 붙잡으면 된

다. 많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한 가지를 찾아내서 붙잡으면 된다. 이게 다 녹취해 주는 목사님 잘못이다. (웃음) 뭘 다 해 주냐. (웃음) 아무도 안 쓰잖아. (웃음) 옛날에는 주일학생들까지 다 썼는데, 안 쓰고 있으니, 죄가 저기에 있어. (웃음) 너무 이걸 빨리 만들어서 나눠주니까. 그런데 이걸 또 가져가지도 않으니. (웃음) 얼마나 속상하냐. 이것을 가지고 권사님이 또 급하게 예배에 안 늦으려고 가지고 가서 인쇄해서 나눠주는데, 여러분, 그것만 가져다줘도 전도다. 우리 주보만 가져다줘도 된다. 간단히 좀 하라. 이걸 뭘 그렇게 비싸게 만드느냐 했더니, "그래도 이것을 가져다가 전해 주면 읽어볼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느라고 40년을 가야 했다. 2주년 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장례식만 치르면서 40년을 보냈다. 결국 60만 명이 다 죽었다. 두 사람 말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각인된 노예 체질, 광야 체질 때문에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실패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불순종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죽은 것이다. 롬6:1-14에 나오는데, 세례는 '바πτizo(βαπτίζω)', 물에 빠뜨려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건져내는 것이다.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 주인을 바꾸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 무슨 내 의견이 있나.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다.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기록으로, 39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도 이유 없이 순종했다. 98세가 될 때까지 수십 명의 목사님을 섬기면서도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다. 그분들이 다 잘 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제발 보호자, 동역자가 나오시기 바란다. 내가 모자라서 여러분을 29명이나 세웠지 않나. 모자란 것은 채워 주셔야 한다. 여러분이 가르쳐서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당시 영혼이 말한다. 내가 안 되면 자식도 안 되고 다 안 되게 되어 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배워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못 하는데 다른 데 가면 잘 하는지, 나를 만나는 목사님이, "아이고, 당시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교인 한 사람이 왔는데, 진짜 제대로 가르쳤더라." 왜 거기 가서만 잘 해! 여기서도 좀 잘 하지. (웃음) 여러분, 다른 것이 없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날 내게 부딪힌 말씀을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오늘의 말씀을 오늘의 기도로 삼고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저분이 힘들어지면 내가 더 가난해지는걸요. 주여, 나를 생각하사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 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계속 정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굳게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번엔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아내와 남편이 극하게 대립해서 싸우고 이혼하려고 했다가, 아내가 체장암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그 제사야 서로 마음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인간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이 아니라 인간인 것이다. 완악한 마음 대신 새 마음을 품으면 된다. 13절을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파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어떻게 오늘을 성공시킬 것인가?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내 삶 속에서 집중적으로 누려지고, 반복적으로 각인되면 된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에게 이 언약을 각인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과 영의 상태가 완고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구약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기 바란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완악한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을 버려라. 마음과 영의 상태가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란다. 매일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호10:12에는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 목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쳐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새롭게 기경되고, 은혜의 비에 적셔지시기를 바란다. 황폐해진 마음과 영의 상태를 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겠다.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굳게 붙잡다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이 들어가는 자식이, 그래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한 마디라도 저들의 가슴에 있어야 할 말씀이 있었다면 각인되게 하셔서, 말씀이 실현됨으로 복을 받아 이 지역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이 교단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교회이오니,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보호자, 동역자, 식구들이 되는 길밖에 없사오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